도자기 궁전
미완의 꿈

Porcelain Palace:
The King's Unfinished Dream

당시 유럽에서 '하얀 금'으로 불리던 자기는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워 매우 귀하고 인기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동아시아의 자기 제작 비법을 알아내지 못해 중국과 일본의 수출 자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708년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연금술사 요한 프리드리히 뵈트거를 시켜 드레스덴 근교 마이센에서 유럽 최초로 경질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마이센 자기'로 아우구스투스는 온 유럽 대륙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해낸 놀라운 성과를 전 세계 왕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린볼트'에 보물의 방을 만든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수집한 최고의 도자기 컬렉션과 마이센 자기를 여러 방에 전시하는 '도자기 궁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727년 그는 여름 별장이었던 일본 궁전을 도자기 궁전으로 바꾸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진귀한 중국, 일본 도자기가 돋보일 수 있도록 도자기의 색상에 따라 방의 이름을 정하고, 각 방의 벽면에 도자기들이 대칭으로 진열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도자기 궁전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실현되지 못한 채 '미완의 꿈'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설계도면에 그려진 도자기와 대응되는 실제 작품들을 함께 연출함으로써 아우구스투스가 꿈꾼 도자기 궁전의 모습을 재현해보고자 합니다.

From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in Europe, porcelain—known as "white gold"—was valued for both its durability and its elegance, which implied wealth and status. Despite its popularity, European porcelain lovers had to rely on Chinese and Japanese export porcelains due to the fact that the Europeans had not discovered methods to produce it. In 1708, Europe's first hard porcelain was created in Meissen near the city of Dresden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secret to creating hard porcelain by alchemist Johann Friedrich Böttger under the patronage of Augustus the Strong.

"Meissen porcelain" became the envy of the entire European continent, and Augustus the Strong wanted to boast to rulers around the world about his achievement of manufacturing the precious material. As he created "Green Vault" to enclose his treasures, Augustus the Strong also attempted to build "Porcelain Palace," and display his most valuable porcelain collections and Meissen porcelains in various rooms.

In 1727, Augustus the Strong began planning to convert the Japanese Palace into a gigantic Porcelain Palace. He titled each room of the Porcelain Palace in accordance with displayed porcelains' colors and made his precious collection of Chinese and Japanese porcelains stand out. Also, they were symmetrically displayed and formalized with the layout of the room.

However, Augustus's Porcelain Palace could not be completed during his reign, and the project remained an "unfinished dream." In this exhibition, his dream of the Porcelain Palace will be revived by presenting actual porcelains alongside interior design sketches of the time.

마이센 자기, 중국 자기에 도전하다
Chinese Original and Meissen Copy

아우구스투스가 도자기 궁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부족했던 중국, 일본 도자기를 대신할 자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의 실험을 거쳐 아시아의 자기와 흡사한 마이센 복제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로지 마이센 자기임을 나타내는 쌍검 표식으로만 중국 자기와 마이센 자기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중국 황제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중국 황제를 자신의 도자기 궁전에 직접 초청하여 마이센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꿈꾸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To complete the Porcelain Palace, additional porcelains were needed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original Chinese and Japanese porcelains. As a result of Böttger's discovery through various experimental stages, Augustus the Strong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Meissen manufactory and started producing reproductions of East Asian porcelain. Meissen porcelain could only be identified and distinguished from Chinese porcelain by its crossed swords mark. Augustus the Strong firmly believed that the Meissen's manufacturing technique would be a force to challenge the Chinese Emperor. He dreamed of inviting the Chinese Emperor to his Porcelain Palace and boasting of Meissen porcelain, but this never transpired.

두 개의 도자기 등롱
Two Lanterns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재위하던 당시 중국에서는 도자기로 만든 등롱(燈籠)을 제작했는데, 빛이 투과되기 위해서는 도자기의 두께를 아주 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도 중국에서 온 도자기 등롱 두 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도자기 등롱을 견본으로 마이센 자기 공장에서도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3년여 간 실험을 거쳤음에도 빛이 비칠 정도로 두께가 얇은 도자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이센의 도자기 등롱은 중국 등롱과 모양은 비슷했지만 두께가 두꺼워 빛이 투과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작품에는 도자기 기술로 중국 황제를 능가하려고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아우구스투스 의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During Augustus the Strong's reign, he owned two porcelain lanterns made from China. These lanterns were difficult to make and required elaborate technique because the walls of the lanterns needed to be very thin for light penetration. He attempted to produce the porcelain lantern at his manufactory in Meissen. However, even after three years of experimentation, they were not successful in producing thin-walled lanterns. The Meissen porcelain lanterns were similar in appearance to the Chinese ones, but the walls were too thick, so the light could not penetrate them as much. We can see Augustus the Strong's proud ambition but regret in his failure to surpass the Chinese emperor using Meissen's technique through porcelain lantern, which could not fulfill the King's dream.

도자기 궁전을 위해 제작된 마이센 카리용
Meissen Carillon for the Porcelain Palace

카리용이란 여러 개의 종을 건반으로 칠 수 있도록 만든 악기입니다. 마이센에서 제작한 이 카리용은 원래 금속으로 만드는 종 부분을 도자기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한 예수회 선교사가 청나라를 방문하고 쓴 여행기에서 중국 황제가 도자기로 만든 악기로 종소리를 내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이 여행기를 읽고, 중국 자기에 버금가는 마이센 자기의 기술력으로 유사한 도자기 악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730년 그는 마이센 공장에 도자기 종으로 소리를 내는 카리용을 제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기는 아우구스투스가 원하는 음색을 내는 데 계속 실패했고, 결국 그는 성공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센 카리용은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 때 완성되어 일본 궁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도 도자기박물관 입구에서 이 카리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 carillon is a musical instrument consisting of bells connected to a keyboard that is used to play them. Unlike a typical carillon, this Meissen Carillon bells are made of porcelain. One Jesuit missionary visited China during the Qing dynasty, and recorded in a travel diary that a Chinese Emperor succeeded in creating carillon with porcelain. Augustus the Strong read this travel diary and decided to make a similar porcelain instrument. In 1730, he ordered carillon bells to be made from Meissen porcelain manufactory. However, this instrument continued to fail at producing the tunes that Augustus desired, and he eventually died without seeing any success from this work. Finally, the Meissen Carillon was completed by his son, Augustus III, and was installed in the Japanese Palace. Currently, the Meissen Carillon is displayed at the entrance of the Porcelain Collection.

장식품에서 식기로
From Decorations to Tableware

아우구스투스의 재위 말년에 마이센 자기는 중국과 일본 자기를 모방하는 데서 나아가 유럽인들의 생활 방식과 취향에 맞게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마이센에서 제작한 유럽 최초의 왕실 자기 식기 세트를 소개합니다. 왕실에서 쓰였던 유럽의 식기 세트 기형과 아시아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문양이 결합한 것으로, 도자기가 진귀한 장식품으로서만 사용되었던 데서 실생활에 사용되는 식기로 그 기능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At the end of Augustus the Strong's reign, Meissen porcelain was no longer imitating the Chinese porcelain. It was being transformed to suit the European lifestyle and taste. In this exhibition, Europe's first set of porcelain tableware—produced in the Meissen manufactory and presented to Augustus the Strong—will be introduced. They combined shape of European dinnerware used on royal tables with painted East Asian symbols of the emperors. Also, they show the transformation of porcelain in Europe, from being a precious rarity to useful tableware.

유럽 최초의 자기, 마이센
Meissen, the First Hard Porcelain in Europe

독일의 마이센 자기는 오늘날 유럽을 대표하는 도자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센을 상징하는 마이센 자기의 쌍검 표식은 마이센 자기가 역사적으로 드레스덴 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센 자기는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도자기를 모방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럽에서 자주 쓰이는 문양으로 표면을 장식하고, 정교한 조각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실용기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덴박물관연합의 도자기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시아 수출 자기와 마이센 자기를 소장하고 있으며, 18~19세기 유럽에서 도자기를 실내 장식으로 진열한 방식을 살려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이국적인 동물들을 만들어 전시한 도자기 동물원은 18세기 마이센 자기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Today, “Meissen” is known a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porcelain manufactories in Europe. Its signature mark, the crossed swords, was a symbol of the State of Saxony, thus represents its connection to the history of the Dresden royal court. Meissen porcelain has become a work of art due to undergoing the stages of copying Chinese and Japanese porcelain, being decorated with European-style patterns, and imitating delicately sculpted ceramics.

The Porcelain Collection of the Dresden State Art Collections holds outstanding examples of Meissen porcelain and the biggest collection of Chinese and Japanese export porcelain in the world. The collections are displayed as garnitures (sets of any matching, but usually not identical, decorative objects intended to be displayed together), following the methods of decoration in 18th and 19th century Europe. The hall of Meissen porcelain animals (menagerie) was created by producing animals from foreign countries in white porcelain under the orders of Augustus the Strong. It displayed the remarkable technology of Meissen porcelain in the 18th century.